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유연*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킬로나 Kelowna
파견대학	Okanagan College	기간	2017. 1. 22(일) ~ 2. 12(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Kelowna에 위치해있다. 시설은 정말 좋았지만 규모는 우리나라의 대학교보다 훨씬 작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내에 탁구대도 있고 누구나 사용이 가능 할 정도로 열려있었다. 분위기 역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정말 자유로웠다. 지나가던 주민 분들이 교내에 아무나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로웠다. 그리고 교내에 있는 학생식당에서 파는 음식들이 우리나라의 식당에 가야 먹을 수 있는 질의 햄버거였다.
수업	분반 없이 캐나다에 같이 파견됐던 13명 모두가 같은 수업을 들었다. 회화를 배우고 우리가 실수하던 발음에 대한 교정을 받았고, 캐나다 문화에 대한 것을 배웠다. 하지만 2주 째에 들어서서 2월 9일에 있던 발표를 위해서 발표준비만을 위해서 수업을 했던 것이 너무 아쉬웠다. 교수님은 너무 좋으셨다. 우리가 지루해 할까봐 중간 중간 게임을 준비해주시고 틀린 발음들은 그때그때 지적해주시는 부분이 좋았다. 과제는 조금 많았지만 과제의 대부분이 홈스테이 가족과 인터뷰를 하는 것이라서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됐다.
Activity	하키경기도 보러가고 스노우보드와 스케이트도 타러 갔고, 볼링도 치러 갔고 컬링도 하러 갔었다. 한국에서 쉽게 할 수 없는 경험들이 많았어서 너무 즐거웠다. 액티비티 시간만 기다렸던 것 같다. 모든 것을 하는데에 있어서 액티비티에 대한 추가비용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말씀 해주셨듯이 여름에 왔으면 좋을 것 같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우리가 간 그 주에 눈이 가장 많이 오고 좀 추울 때라고 들었다. 그래서 눈이 정말 많이 오는 것을 봤다. 한번에 20cm정도가 오고 쌓인 것들을 치운 것을 봤는데 사람 키보다 컸다.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럽고 발이 빠져서 다리가 추우므로 부츠를 꼭 챙겨가야 할 것 같다. 나의 홈스테이 엄마가 너희는 왜 아무도 부츠를 가져 온 사람이 없냐면서 놀랐다. 여기서 말하는 부츠는 우리나라에서 신는 어그부츠가 아니라 그것보다 길어야 한다. 눈만 주의하면 괜찮을 것 같다. 온도는 한국과 비슷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13도와 켈로나에서의 -13도는 몸이 느끼는 온도가 달랐다. 눈 때 문인 것 같다.
안전	안전은 정말 좋다. 사람이 건너려고 서있으면 신호가 바뀌지 않더라도 기다려주는 경우가 많았다. 늦은 시간 길을 다녀도 생활을 일찍 하는 켈로나 사람들은 다 집에 있기 때문에 무섭지 않았다.
숙소	홈스테이 내가 묵었던 집이 캐나다에 같이 간 13명의 집 중에서 가장 좋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설은 너무 좋았다. 일단 방에 따로 화장실이 딸려있는 것이 가장 좋았다. 눈치를 보지 않고 씻거나 볼 일을 봐도 됐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홈스테이 가족 분들이 자유로워서 내가 규칙이 있냐고 물어봤었는데 규칙 같은 것은 없다고 했다. 진짜 우리 부모님처럼 저녁시간에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과 내가 했던 액티비티에 대해서 물어봐주셨다.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싶을 정도로 좋았다.
식사	홈스테이, 외부식당 홈스테이에서 먹고 외부식당을 이용했다. 우리나라보다 비싼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만족했고, 홈스테이 집에서 먹는 식사는 정말 맛있었다. 집에서 먹는 식사인가 싶을 정도로 맛있는 음식들을 주셨다.
교통	통학은 대부분 버스로 했고, 같이 간 오빠네 홈스테이 집이 우리 집에서 가까워서 오빠랑 같이 홈스테이 하는 분이 데려다 주시기도 했다. 버스정류장을 방송해주지 않는 점이 불편했고, 작은 도시라서 그런지 버스가 제 시간에 오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래서 친구들은 학교에 지각하곤 했고, 집에 늦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버스기사 분들은 친절하시기 때문에 목적지를 여쭙보면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좋았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및 여행자보험	약 1,500,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100,000원	
기념품	300,000원	
차비	30,000원	
나를 위한 투자	100,000원	
합계	2,030,0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부츠를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눈이 정말 많이 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돌아오자마자 다시 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다. 하지만 겨울보다는 여름에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나는 생각했다. 홈스테이 가족을 잘 만난 덕분에 행복했던 것 같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마지막 날이라고 홈스테이 엄마가 AAA등급 소고기를 뒷마당에 있는 바비큐 기계에서 구워주셨다. 정말 꿀맛.</p>	<p>날씨가 정말 좋을 때 찍은 사진이다. 킬로나는 정말 자연을 만끽 할 수 있는 곳이고, 공기가 너무 좋았다.</p>
	
<p>이 사진은 내가 서양에 가면 꼭 볼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던 2층버스이다. 실제로 봤고 자주 탔다. 한국이랑 다른 점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p>	<p>날씨가 좋을 때 학교 사진이다. 학교는 위에 썼듯이 좁지만 외국 학교라는 느낌이 물씬 들었다.</p>

© by YJ



눈이 정말 많이 온 날 스키장이었다.
조금만 움직여도 보드가 눈에 푹푹 파여서
앞으로 전진 할 수가 없었지만, 이 지역의
특징이려니 하고 참았다. 재밌었다.

© by YJ



쇼핑한 물품들이다. 바지가 정말 싼다.
질이 정말 좋았는데 세금 붙은 가격으로
\$11.2 밖에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와 큰
차이는 없지만 외국 브랜드들이
우리나라보다 싸기 때문에 사면 좋다.